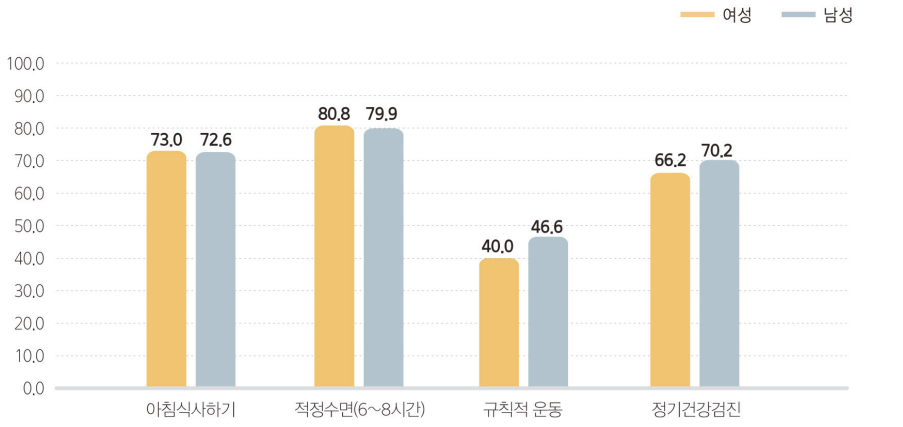
〈그림Ⅵ-5〉 성별 평소 건강관리 실천율 (2017)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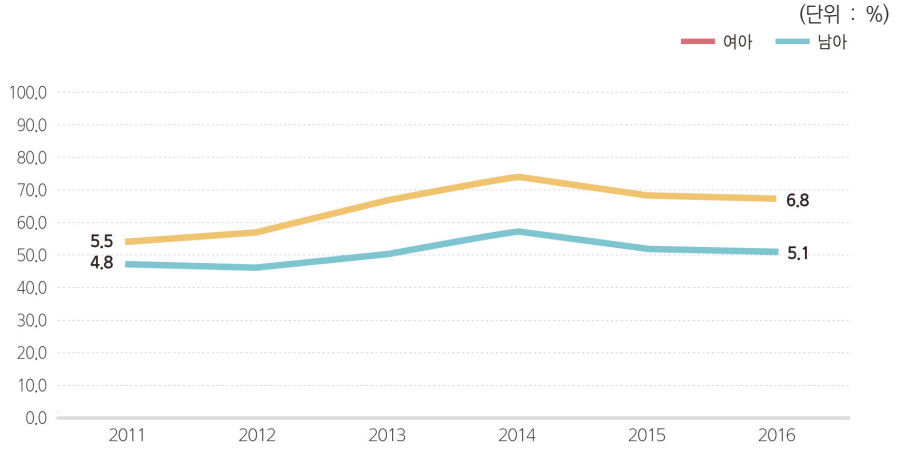
자료 : 울산광역시,「울산 사회조사」.

○ 2017년 울산광역시민의 평소 건강관리 실천에 대해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, 남녀모두 적정수면(6-8시간)을 실천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 순으로 아침식사를 실천(여 73%, 남 72.6%), 정기건강검진(여 66.2%, 70.2%), 규칙적 운동(여 40.0%, 남 46.6%)의 순으로 실천하고 있음.

3) 출산·질병·사망

〈그림Ⅵ-6〉 출생아 성별 저체중아 발생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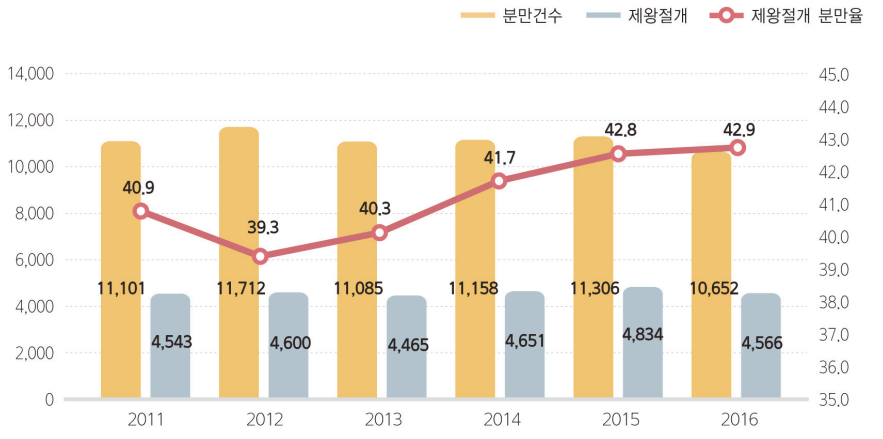


주 : 저체중아는 출생 시 체중이 2.5kg 미만인 경우임.
자료 : 통계청,「인구동향조사」.

○ 출생아의 체중은 출생아의 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 볼 수 있음. 울산광역시 여아 출생아 중에서 저체중아(체중이 2.5kg 미만)의 비율은 2011년 5.5%에서 2016년 6.8%로 증가하였으며, 남아 출생아 중에서 저체중아의 비율은 2011년 4.8%에서 2016년 5.1%로 증가하였음. 울산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저체중아 발생률이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임.

〈그림Ⅵ-7〉 제왕절개 분만 비율 추이

(단위 : 건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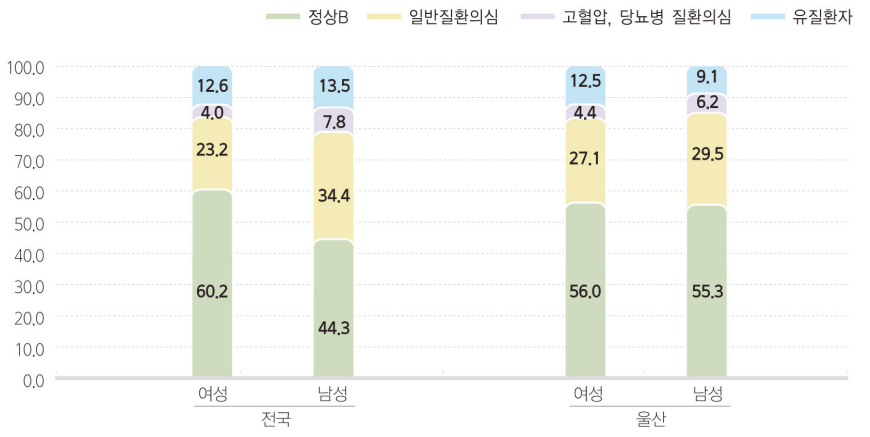


주 :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임.
자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,「건강보험통계연보」.

○ 울산광역시 여성 중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은 2011년 전체 분만 건 수 11,101건 중에서 4,543건으로 40.9%를 차지하였고, 2012년에는 전체 분만 건 수 11,712건 중에서 제왕절개는 4,600건, 39.3%를 차지하여 최하점을 보임.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전체 분만건수 10,652건 중 제왕절개는 4,565건으로 42.9%를 차지하여 최고점을 보임. 전체 분만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제왕절개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.

〈그림VI-8〉 성별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결과 (2016)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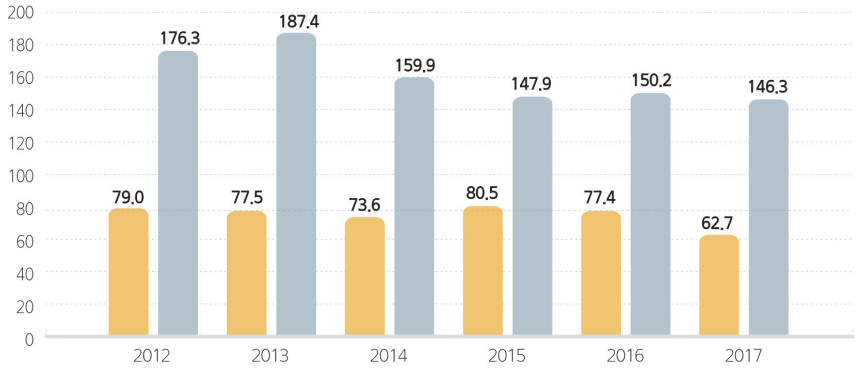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,「건강검진통계」.

○ 울산지역 내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결과를 살펴보면, 여성과 남성 모두 정상B(경계)를 판정받은 즉, 1차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,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대상은 여성 56%, 남성 55.3%으로 가장 높았으며, 전국 대비 여성(60.2%)은 낮고 여성(44.3%)은 높음. 일반 질환 의심 즉,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관리라 필요한 대상은 여성이 27.1%로 전국 23.1%보다 다소 많았으며, 남성은 29.5%로 전국 34.4%보다 낮았음. 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 즉 1차 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등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는 여성이 4.4%로 전국 4.0%과 유사한 수준이며, 남성의 경우 6.2%로 전국 7.58%에 비해 적은 수준임. 그 외에 유사질환자 즉, 고혈압, 당뇨병 이상지질혈증,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은 여성 12.5%로 전국 12.6%와 유사한 수준이며, 남성은 9.1%로 전국 13.5%보다 낮음.

〈그림Ⅵ-9〉 성별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

(단위 : 십만 명 당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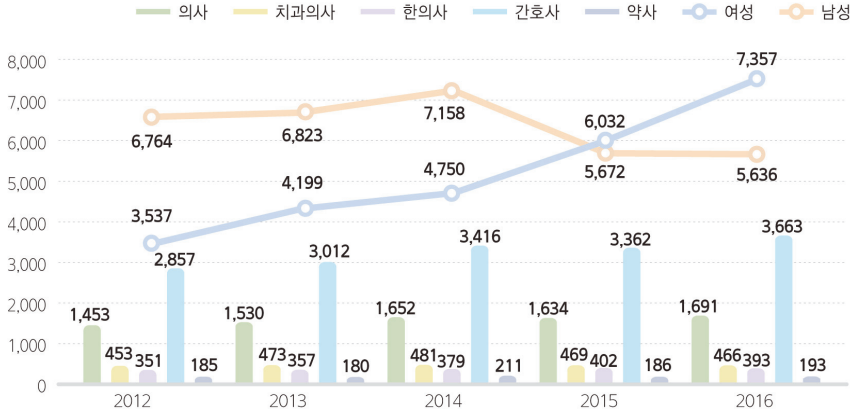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「사망원인통계」.

○ 2012년 - 2017년 사이 울산시민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 인구 십만명 당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 추이를 보면 여성은 2012년 79명에서 2017년 62.7명으로 감소하였으며, 남성은 176.3명에서 146.3명으로 감소함.

4) 의료이용 및 의료지원

〈그림Ⅵ-10〉 성별 의료인력 현황

(단위 : 명)



자료 : 울산광역시,「울산통계연보」, 보건복지부,「보건복지통계연보」.